

송정역~혁신도시 직행버스 5월부터 다닌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버스 운행 확대 등 잇단 논의

3월부터 광주·나주 주요거점~혁신도시 노선·횡수 늘려

비싼 택시요금, 부족한 버스노선 등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선을 신설할 정도의 수요가 없어 택시 및 버스업계의 요금 인하나 노선 신설을 강요할 수 없어 실질적인 대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5일 “지난달 28일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인프라 시설 확충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광주·전남도·나주시 주무과장 등이 나주시청에서 실무위원회를 가졌으며 이날에도

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광주공항~송정역~혁신도시 간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돼 35분 간격으로 하루 48회 운행되고 있으며, 올 1월부터는 각각 하루 2차례와 6차례씩 혁신도시~서울 간, 혁신도시~남양 간 시외버스가 다니고 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너무 적고, 버스 안내시스템 등도 갖춰지지 않아 이전기관 직원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편이 높다.

반면 버스업계에서는 이전기관들이 전세버스 30여 대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객이 버스 1

대당 4~5명에 불과하다며 노선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빛가람혁신도시 간을 공동지역으로 지정해 택시요금을 일원화해줄라는 요구도 빚발치고 있다. 광주는 145m에 100원인 반면, 농어촌 규정이 적용되는 빛가람혁신도시는 160원인데다, 나주택시의 경우 빈 차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공차보상금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기관 직원 및 방문객들에게 택시요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까지 택시요금을 광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나주시역 택시업계를 설득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등은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광역버스운영 정보제공

(BIS) 서비스를 개시하고 광주·나주 주요거점~혁신도시 간 운행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를 신설하거나 대폭 증회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송정역~혁신도시 간 20분 간격 1일 60회, 광주~혁신도시 간 10분 간격 1일 140회, 나주~나주역~혁신도시 7분 간격 1일 70회 등이다.

오는 5월부터는 20분 간격으로 매일 30회 송정역~광주터미널~혁신도시 간 좌석직행버스가 다닐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요가 없는데 대중교통을 무조건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버스 및 택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대통령 공약사항 국비 지원해 주세요”

전남도, 주요 부처 방문 예산확보 나서

전남도가 4·5일 청와대, 행정자치부 등 주요 부처를 잇따라 방문하고 2016년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낙연 전남지사 등은 대통령공약사항 중 국비지원이 미흡한 현안사업이나 시책 현안 또는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5일 “이 지사와 우기정 정부부처장 등이 지난 4일부터 1박2일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부부처 장·차관 등을 만나 여수~남해 간 고속도로 건설, 고흥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무안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 여수국가산단 내 화생방 제독차 보강, 남양 119안전센터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오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 대통령 공약사항 중 국비 지원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오후에는 직접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장·차관을 면담했다.

지난 4일에는 정부부처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의 주요 경제부처(기재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자부)를 방문, 사업 담당 실국장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처(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좀 더 확실하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안)에 반영을 위한 것으로, 향후 기재부의 정부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앞두고 점차 요청의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신규 및 계속사업을 3월 중 최종 확정해 설 연휴와 향후 예상되는 정부 개각 이후 관련 부처 장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수돗물 5500만 줄줄

전남도 상수도 누수율 25%

전국 평균 2배... 464억 손실

전남도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전국평균 10.7%)의 2배가 넘는 25.3%로, 이로 인해 연간 5500만톤의 수돗물이 누수돼 464억원 상당의 손실이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담양)은 2015년 행정환경위원회 환경국(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에서 연간 464억원이 새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천재영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노후관을 제 때에 교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노후관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남도내 수도관 1만5806km 가운데 5분의1이 넘는 3638km(23%)가 20년 이상 노후관으로, 그로 인해 수돗물 생산비 증가 및 손실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남도내 상수도 관로는 지난 1994년 농업용수 공급개선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설 노후화보다는 근본적인 공사부터 어긋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지난 10년 간 도의회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진척되는 상황이 없는 것은 전남도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휴지 조각된 여객기

대만 타이베이 송산공항 이륙 직후 인근 하천에 추락한 대만 푸싱항공 국내선 여객기 동체가 5일(현지시간) 인양된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이 동체 주위에 모여 명복을 빌고 있다. 이번 사고로 3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으며 12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역 콘텐츠산업 적극 육성 수도권과 불균형 해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올해 100억원 규모의 신규예산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서겠습니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콘진원)은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콘진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동지를 둔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다. 콘텐츠 산업은 영상·음반·게임·애니메이션·모바일 등을 아우르는 산업

영역이다.

송 원장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역 특화 콘텐츠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한류문화 형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 문화·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콘텐츠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지역 콘텐츠 지원팀을 꾸린 뒤 지역 콘텐츠산업 인력의 교육 등 멘토링 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또 광주시·전남도,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과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찾고 있으며, 지자체 우수 콘텐츠를 모아 전국 규모 산업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방안과 관련, “콘진원은 한류 형성과 흥행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초일류 콘텐츠를 만들어 한류가 세계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영역을 선택해 집중지원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세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혁신소장수는 불경기형 맛소장수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

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